

조선후기 사회문화사 연구동향

오 인 택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目次

- I. 머리말
- II. 사회문화사 연구 동향
 - 1. 사회문화사의 의미
 - 2. 연구 동향 개관
- III. 사회문화사를 위한 제언
- IV. 맺음말

I. 머리말

부산 지역사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이는 부산시 산하의 연구기관인 부산시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되고 대학의 연구소가 부설되는 등의 연구 환경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상이지만, 한국사 연구가 전반적으로 심화되던 추세와 간접적으로 관련된다.¹⁾ 한국사 연구가 구체화되면 실제의 역사 현장인 지역의 역사 연구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80년대 들면서 전문 역사가들이 부산 지역사 연구에 적극 참여하면서 연구 성과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조선시기, 나아가 조선후기 연구도 본격화되면서 2000년대에 이르러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이 시점에서 그간의 조선후기 사회문화사 연구 성과를 살펴보는 것은 종래의 연구 성과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그간 부산 지역사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가 없지 않았다. 지역사 연구의 성격과 시대별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²⁾ 부

-
- 1) 김광철, 「지역사 연구의 전망」, 『부산경남역사연구소』 회보, 창간호, 1994; 윤용출 외, 「전근대 부산 경남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같은 책』; 최경숙 외, 「근현대 부산 경남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같은 책; 홍연진, 「부산의 지방사 연구 현황」, 『항도부산』 8, 1991; 홍연진, 부산사 연구현황, 『항도부산』 10호, 1993; 강대민 박선애, 「부산사 연구기관과 연구현황」, 『문화전통논집 2호』, 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 1994.
 - 2) 김광철, 「지역사 연구의 전망」, 『부산경남역사연구소 회보』, 창간호, 1994; 윤용출 외, 「전근대 부산 경남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같은 책』; 최경숙 외, 「근현대 부산 경남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같은 책』

산 지역사의 전체 연구 업적을 정리하여 분류한 연구,³⁾ 최근
에 들어서 조선시대의 고문서 연구와 금석문 연구 동향을 정
리한 것이 그것이다.⁴⁾ 연구 성과가 증가하면서 전체 연구 동
향을 정리하는 방식에서 각 시대와 각 시대의 세부 영역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본고는 이러한 부산지
역사 연구 추세에 맞추어서 최근 활발하게 연구된 조선후기
의 사회문화사 연구 동향을 정리하기 위한 글이다.

연구 동향의 정리 순서는 우선 부산지역사에서 사회와 문
화, 사회사와 문화사 개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펴서 사
회문화사 범주를 나름대로 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사회문화사 연구 동향을 개관하도록 하겠다. 이어서 부산지역
사에서 조선후기 사회문화사 연구의 진전을 위한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정리 범주는 1960년대부터 2006년까지의 연구 성
과와 발굴 자료들이며, 사회문화사 연구가 없던 시기에는 연
구 대상의 사회문화사적 연구 가능성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II. 사회문화사 연구동향

1. 사회문화사의 의미

여기서 사용하는 사회문화사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3) 홍연진, 「부산의 지방사 연구 현황」, 『항도부산』 8, 1991; 홍연진, 「부산사 연
구현황」, 『항도부산』 10집, 1993; 강대민 박선애, 「부산사 연구기관과 연구현
황」, 『문화전통논집』 2호, 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 1994.

4) 김동철, 「부산지역의 조선시대 고문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항도부산』 22,
2006; 김철범, 「부산지역의 조선시대 금석문의 연구전망과 활용방안」, 『같은 책』

아니라, 부산지역사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된 사회와 문화, 사회사와 문화사 두 측면의 의미를 나타낸다.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전자는 연구 부문의 외형적 측면을 후자는 방법론적인 측면의 성격을 갖는다 하겠다.

전자의 사회와 문화는 연구의 소재 영역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사전적 의미의 사회는 공동체 또는 공동체적 조직이나 집단을 뜻한다. 공동체 또는 조직이나 집단은 다양한 단위로 존재하므로 사용된 맥락에 따라 다양한 범주를 갖지만 사회적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겠다. 따라서 사회의 실체는 다양한 하위 범주에서 살필 수 있다. 가족, 친족, 각종 집단 조직, 신분, 호적 등이 그것이다. 이들 범주가 사회의 구조를 알려주는 실체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소재가 제도적인 의미 파악의 대상으로 한정되면 그것은 직접적인 사회적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

사전적 의미의 문화는 생활양식 또는 정신 활동이나 그 산물을 나타낸다. 그런데 생활양식이나 정신활동 등은 구체적인 특정 소재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재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읽음으로서 파악된다. 문화 개념도 사회 개념과 같이 특정 소재를 통해서 드러난다기보다는 각종 대상에서 그 문화적 의미를 읽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각종 한국사 서술에서 문화적 의미 파악의 대상은 종교, 예술, 문학, 법률, 사학, 과학과 기술 등 다양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실제 부산지역사 연구 성과를 분류할 때 사용된 범주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 표는 분류의 실제 사례이다.⁵⁾

5) 홍연진, 「앞의 논문」, 1993

부산지역사 연구 성과 분류 항목

분류 번호	1	2	3	4	5	6	7	8	9
분류 항목	총류/ 통사류	정치/제도/ 군사/법률	사회/신분 /가족	경제/산업 /토지	사상/종교 /학문/사 학사/교육	문화/문화 재/예술 과학사/서 지/민속	미술사/고 고학	역사지리 지도	인물/ 기타

위의 분류에서 1번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번호는 각 부문 영역을 나타낸다. 이 중에서 사회는 3번, 문화는 6번이다. 3번에서 사회는 신분, 가족과 병렬적 범주이다. 즉 범주적으로 사회, 신분, 가족이 동등하게 구분된 것이다. 실제 분류에 포함된 논제는 주제가 사회, 사회변동, 사회운동 등인 경우였다. 따라서 사회의 범주는 연구 대상이 사회이거나 사회운동인 경우라 할 수 있다. 6번의 하위 범주는 문화, 문화재, 예술, 과학사, 서지, 민속의 6개 영역이다. 실제 분류에 포함된 논제는 문화 또는 생활의 범주였다.

부산지역사 분류 체계는 매우 세분되어서 사회와 문화의 범주도 매우 협소하였다. 따라서 분량이 많은 전체 연구 성과를 분류할 때는 유용하지만, 분량이 적은 조선후기와 같은 특정 시대의 연구 성과를 분류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방법론 차원에서 한국사의 사회사와 문화사 의미는 상당히 포괄적이다. 연구 대상이 무엇이든 사회사적 방법과 문화사적 방법이 적용되면 사회사 또는 문화사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에서 사회사 방법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1960년대

의 한국사 연구 방법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조선후기 역사 연구의 중요한 방법은 내재적 발전론에 기초한 경제사였다.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 등이 그 대상이었다. 경제사 중심의 연구를 통하여 사회구성의 물적 토대인 농업생산력, 토지소유관계, 농업경영 등에서 상당한 업적을 축적하였다. 그 결과 중세사회의 기본성격, 변화발전의 내용, 해체기의 여러 양상 및 근대사회로의 지향점 등에서 일정한 역사상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방법은 부조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70년대 이후 사회변혁의 추세 속에서 경제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사회사였다. 사회사 연구는 주로 향촌사회를 단위로 하여 재지 지배세력의 지배구조, 국가지배력의 통제와 저항, 기층민의 존재형태 등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는 뒤이은 80년대의 운동사 분야의 연구에도 영향을 주었다. 사회사 연구는 지배구조의 변화 즉 지배구조의 재생산 기제를 다루는 구조사와 사회모순을 매개로 변혁주체들이 계급적인 결집력을 형성하면서 성장하는 운동사 두 측면으로 진행되었다.⁶⁾

한국사에서 문화사 연구 방법은 해방 후 1960년대 들어 기존의 식민사관과 실증주의 연구 방법을 비판하면서 대두하였지만, 2000년대 들면서 새로운 문화사 방법이 제기되었다. 문화사 방법에 2개 단계가 있는 셈이다.

1단계 문화사는 1960년대 들어 식민사관의 타율성론에 대하여 자주적인 민족문화를, 개별 사실의 탐구를 중시하던 문헌고증주의에 대해서는 종합적민 민족문화를 강조하면서 대

6) 이해준, 김인걸 외,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p.3-4.

두하였다. 아울러 사적 유물론에 대해서도 계급투쟁 일변도를 비판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조화를 강조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문화 개념은 문화인류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문화란 “인간이 사회의 성원으로서 획득한 생활능력” “그 생활능력의 축적이며 복합체인 생활양식” “생활능력의 결합을 계속적으로 극복해 나아가고, 사회모순을 항상 극복해나가는 능력” 등으로 정의된 것이 그것이다.⁷⁾ 결국 문화사 입장에서 부산 지역사란 부산지역 내의 다양한 문화 현상을 민족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겠다.

한국사의 2단계 문화사는 2000년대 들어서 서양사의 신문화사 영향으로 나타난 연구 방법이다. 신문화사는 서양에서 종래의 마르크스사학과 아날학파의 역사학 방법을 비판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념화한 용어이다.⁸⁾ 신문화사 방법 가운데 최근 구체적으로 한국사에 적용된 방법으로 미시사를 들 수 있다. 미시사를 수행했던 한국사 연구자가 자신의 방법을 “미시사는 작은 사물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물 속에서 살펴본다”는 인용구로서 요약하였다.⁹⁾ 여기서 작은 사물이란 거대한 것에 대한 사소함, 익숙한 것에 대한 낯설음 등의 다층적 의미를 갖는다.

작은 사물 속에서란 관찰 대상의 외부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 대상 내부로부터 관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둘다 일상적 한국사 연구에서는 낯선 방법이다. 결국 한국사 연구자가 경험한 미시사는 거칠게 해석한다면 사소한 것을 분

7) 이영호, 「해방 후 남한 사학계의 한국사 인식」, 『한국사 12』, 한길사,

8) 조한욱, 「신문화사란 무엇인가」, 『한국사론 32』; 피터 버크, 「조한욱 옮김」, 『문화사란 무엇인가』 길, 2005.

9) 백승중, 「미시사의 도전」, 『한국사 연구방법의 새로운 모색』, 한국사학회, 2003; 백승중, 「18세기 전라도 어느 양반들의 ‘門錢’- 高利貸와 향촌사회」, 『한국사론 32』, 국사편찬위원회.

석하지만 관찰의 시각은 대상의 내부에 두고 대상의 의미를 읽는다는 것이겠다. 이러한 방법은 새로운 문화사의 방법적 특징을 잘 말해준다. 이 점에서 새로운 문화사 방법은 문화인류학의 참여관찰법을 연상케 한다.¹⁰⁾ 참여관찰법의 핵심이 관찰 대상 내부에서 관찰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새로운 문화사의 방법적 뿌리가 문화인류학에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점에서 수긍된다.¹¹⁾ 이러한 2단계 문화사는 최근 들어서 한국사 연구에 도입되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부산지역사 연구에 나타난 사회문화사 연구 범주를 한정하기 위하여 사회와 문화, 사회사와 문화사의 의미를 거칠게 짚어보았다. 전자는 주로 연구 대상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한 분류였다. 후자는 연구 방법론 차원의 분류였다. 전자의 분류는 대상의 분량이 많으면 좁게, 대상 분량이 적으면 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분류 경계가 애매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는 대상의 분류가 고정된다. 하지만 후자의 분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연구 대상이 어떤 소재이든 사회사적 또는 문화사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회사와 문화사는 상보적임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사가 주로 구조적 설명에 주목하고, 문화사가 탈구조적 의미 찾기라는 역사적 상상력에 주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지만,¹²⁾ 역사적 상상력 자체가 구조적 설명 없이는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또 사회의 문화사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문화의 사회사도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10) 제임스 스프레들리, 이희봉 역,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6.

11) 조한욱, 「앞의 논문」; 피터 벅크, 조한욱 옮김, 『앞의 책』

12) 조한욱, 「앞의 논문」

게다가 문화사적 접근은 아직 도입 단계이므로 여기서는 사회사 또는 문화사적 접근을 사회문화사로 범주화해도 좋을 것이다.

2. 연구동향 개관

60-70년대 조선후기 연구 논문은 모두 6편이며, 그 가운데 4편이 왜관 2편이 임진왜란에 관한 기록물을 검토한 것이다. 모두 부산 지역과 긴밀하게 연관된 것이다. 조선후기에는 초량왜관이 설치되었고, 그 왜관은 일제시기 일본인의 거류지로 전환되었으며, 그 기억과 흔적이 아직도 선명하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에서 부산은 전쟁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었다. 부산은 일본이 조선에 드는 대문이었다. 따라서 임진왜란의 피해를 가장 혹독하게 입은 지역이었고, 또 관련 흔적도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부산지역사 연구의 출발기였다. 따라서 왜관과 임진왜란 연구는 기초적인 사실 구명에 머물렀다. 왜관 연구의 경우 초량왜관의 성립과정, 왜관의 구조, 왜관과 관련된 무역 등이 다루어졌다. 임진왜란의 경우도 부산과 관련된 전쟁 기록물이 정리되었다. 이 무렵은 사회문화사로 분화되기 어려운 시기였다.

이현중, 1959, 이조 왜관 약고, 《성균》 7

김용욱, 1962, 부산왜관고, 《한일문화》 2-3

정중환, 1963, 일본기록에서 본 임진난-부산관계 사료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3

이완영, 1963, 동래부 및 왜관의 행정소고, 《항도부산》 2

정중환, 1970, 임진왜란과 부산사적, 《향토문화》 3

최영식, 1970, 부산 왜관의 직관고, 《향토문화》 3

60-70년대에 비해서 80년대에는 연구 주제가 확대되면서 사회, 문화 영역의 소재가 다루어지기도 하고, 사회사 및 문화사적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가 축적되었다. 아울러 고문서 사료의 발굴과 정리가 활발히 이루어진 점도 특징적이다. 부산 지역사 연구의 중흥기라고 해도 좋겠다.

이 시기에 다루어진 조선후기 연구의 소재들은 부산포진성지(이상록), 부산지구 전투(정중환), 동래부 문권(양맹준), 동래부 발급의 호구단자(양맹준), 동래 무관의 교체 임기(이원균), 동래부 축성역(윤용출), 초량왜관(김의환) 등이다. 이 가운데 동래의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주목되는 소재는 동래부 문권, 동래부 발급의 호구단자, 동래부 축성역, 초량왜관 등이다.

동래부 문권은 동래부가 상급 및 하급 또는 타 지방관청이나 관인과 주고 받은 문서의 형태를 개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문서 해제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들 고문서는 관인과 관청간에 작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읽힐 수 있는 흔적이라는 점에서 사회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동래부 발급의 호구단자는 18-19세기 동안 사상(사천면)에 거주하였던 경주최씨 집안의 호적 기록 47점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 고문서 소개는 그 자체만으로 1세기 동안의 경주최씨 집안의 성격과 변화상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호구단자는 사회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인 셈이다. 나아가 호구단자의 발급과 수급 그리고 보존이라는 행위의 사회적 맥락이 천착될 때 당시 사회의 문화가 읽힐 수도 있지만 이는 앞으로의 과제이다.

동래부 축성역은 18세기 초엽 동래부성 축성의 실상을 분석하여 부역노동이 쇠퇴하던 사회적 추세를 보여준 연구이다. 지역의 특정 현상이 어떻게 전체 사회의 변화 추세와 호응하는지를 보여준 점에서 사회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이어서 나아가 축성역에 내재한 지역 문화를 읽는 것은 향후의 과제일 것이다.

초량왜관 연구는 18세기 초량왜관의 구조와 직제가 완성되는 과정을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조일의 교린체계가 확립되는 과정이라는 시각에서 다룬 것이다. 따라서 한일관계사 맥락에서 초량왜관의 성립과정을 살핀 것이라 하겠다. 왜관이 부산지역사의 사회문화적 영역에 중요한 소재라는 점에서 한일관계사적 왜관 연구는 앞으로의 사회문화사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라 하겠다.

이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문화사 연구 동향은 조선 후기 고문서 정리이다. 향교와 향청 고문서의 해제와 번역(정경주), 각종 동래사료의 해제(이훈상 외)가 그것이다. 향교 고문서와 향청 고문서는 대체로 17-19세기 동래 향반 사회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동래에는 명문 사족이 없었기 때문에 향교, 서원, 향청, 무청 관련 임원이 향촌사회를 지배하였다. 각종 동래사료의 해제는 동래부와 좌수영, 다대진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조선후기 부산지역 사회문화사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이상록, 1980, 부산포진성지의 연구, 《한사실업전문대학논문집》 5
 정중환, 1981, 임진왜란시의 부산지구전투, 《군사》 2
 양맹준, 1982, 광서 19년 동래부문권, 《연보》 4

- 양맹준, 1982, 동래부발급 경주최씨일가 호구단자, 《연보》 4
 이원균, 1985, 조선후기 지방무관직의 교체실태-경상좌수영선
 생안과 ‘다대포선생안의 분석-, 《부대사학》 9
 윤용출, 1989, 18세기초 동래부의 축성역과 부역노동, 《한국
 문화연구》 2
 김의환, 1989, 부산 단일 왜관 성립의 연구-17,18세기의 대일
 관계 구명을 위하여-, 《부산고승제박사교회기념논총》
 정경주, 1989, 동래향청향교고왕록 해제, 《동래향청향교고왕록》
 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
 이훈상 외, 1989, 《동래사료》(1-4), 여강출판사

90년대 들면 부산지역의 사회문화사 연구는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보인다. 우선 조선후기 전체 연구가 27건인데 그 가운데, 20건이 사회 문화 영역에 속하였다. 나머지 6건은 임진왜란, 왜관, 회화, 건축을 다룬 것으로서 사회문화사적인 지역사 연구를 보완하는 것이다. 특히 조선후기 부산지방의 진경산수화를 소개한 연구는 앞으로 사회문화사적인 지역사 연구가 천착될 때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하겠다.

20점의 사회문화사 연구는 주제와 방법에서도 큰 변화를 보였다. 취급된 주제는 17세기 왜관의 交奸 사건(손승철), 18-19세기의 동래부 동하면 고문서(정경주), 조선후기 동래의 지배 엘리뜨 관련 고문헌 자료(이훈상, 민선희), 조선후기 동래의 무청(민선희), 17-18세기의 부산 문화(김승찬), 19세기 후반의 동래상인(김동철), 조선후기 동래부 남촌면 고문서(강대민), 덕포동 강선대 고문서(정경주), 동하면 못골의 동래 정

씨 고문서(이훈상,민선희), 동래 지역 엘리트와 천주교 수용자들의 고문서(이훈상,민선희,손숙경), 석대천씨집안 고문서(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 범어사의 고문서(이원균), 동래 지역 밀양 손씨 향리집안의 고문서(김동철), 사천면 고문서(낙동문화원) 등이다.

왜관 연구는 제도사 연구가 사회문화사 차원으로 심화되는 경향을 잘 보여준다. 《倭人作拏膽錄》을 통하여 짚어본 교간 사건 연구가 그것이다. 교간 사건이란 왜관에 상주하는 일본 남성과 왜관 밖의 조선 여성이 행한 간음 사건을 말한다. 《倭人作拏膽錄》은 1690년의 교간 사건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교간 사건은 사건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사회문화사적으로 중요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심화될 여지가 많은 소재이다.

18-19세기의 동래부 동하면 고문서를 정리 소개한 연구도 지역의 사회문화사를 구명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동하면은 현재의 해운대구 일원의 조선후기 행정단위 명칭이다. 이 자료를 통해서 기존 사료로서 알 수 없었던 조선후기 해운대의 사회문화사, 특히 지역 기층민의 생활상이 생생히 드러났다. 아울러 풍헌 약정 등 향촌사회 지배와 관련된 임원의 성격도 소상히 드러났다. 풍헌 약정 등의 명칭은 향약, 동약 연구에서 구명되었지만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고문서 소개에 그쳤지만, 이를 바탕으로 깊이있는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진다면 해운대의 사회문화사, 부산의 사회문화사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조선후기 동래의 지배 엘리트 관련 고문헌 자료는 80년대 소개된 《동래사료》(1-4) 이후에 새롭게 조사된 사료를 소개

한 연구이다. 향반의 지배조직을 알 수 있는 《동래향안》의 원본(활자본), 향반 가문의 족보, 파보, 가승 및 문집, 향반 가문이 소장한 각종 고문서, 조선후기 동래 祠宇의 하나인 三節祠 관련 고문서, 이임과 무임의 조직과 그 구성원의 성격을 알려주는 고문헌 등이 소개되었다. 동래의 지배 엘리트란 향반, 이임, 무임 등을 일컫는다. 이로써 전국 단위의 양반이 존재하지 않았던 조선후기 동래에서 지배신분의 조직구조와 그 구성원 그리고 상호 관계가 파악될 단서가 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후기 동래의 무청 연구는 조선후기 동래의 지배 엘리트 관련 고문헌이 수집 정리된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는 조선후기 동래 지역의 신분체제 실체를 밝히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무청이란 변경 지역에 설치된 각종 군사 기구를 일컫는 명칭인데, 중군청, 군관청, 교련청, 장관청, 수성청, 별기위청, 별무사청, 도훈도청 등 8개의 무청이 근간을 이룬다. 이들 무청의 임원을 무임이라 한다. 이들 중 상급 무임은 중군과 각 무청의 상급 직임자들로서 향반이 차지하였다 한다.

17-18세기 부산 문화는 동래의 교육기관과 건축물, 문학 등을 통해서 당시의 부산 문화를 개관한 것이다. 임진·정유 왜란을 겪고 전란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이어서 당시 동래지역은 문화를 정비하고 창조할 여력이 없었다고 보고, 문화 창조 및 문화 발현과 연관된 매개물을 통해서 문화를 읽으려 하였다.

19세기 후반의 동래상인은 1860-70년대 작성된 동래상인의 명단인 《동래부상고안》을 동래 각 무청 무임의 명단인 《동래무임선생안》과 비교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로써 중군을 비롯한 각 무청의 首任職 무임들이 그들의 직임이 보장한 특

권을 담보로 동래 왜관의 대일사무역을 독점한 동래상인임을 밝혔다. 아울러 조선후기 동래상인과 무임 및 향리의 상호 관계가 드러나 무임 연구의 진전과 더불어 조선후기 동래의 사회문화사 실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열었다 하겠다.

조선후기 동래부 남촌면 고문서 연구는 부산시 남구 수영동 수영기로회가 소장했던 고문서를 소개한 것이다. 전체 44책의 고문서 가운데 사료적 가치가 큰 15건의 고문서가 상세히 소개되었다. 소개된 고문서 가운데 조선후기 동래의 사회문화사와 연관된 것은 18세기 중반기를 전후한 남촌면에 관한 것이다. 이들 남촌면 고문서는 동하면 고문서와 더불어 부산지역의 사회문화사 실체를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덕포동 강선대 고문서는 북구 덕포동의 강선대에서 발견된 고문서를 소개한 것이다. 조선후기와 관련된 것은 19세기 고문서이다. 고문서는 강선대의 공동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고문서는 조선시대 동래부 사천면 고문서와 함께 부산지역의 사회문화사를 구성하는 기초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동하면 못골의 동래 정씨 고문서는 19세기부터 현재의 해운대에 살던 동래 정씨 집안의 고문서를 소개한 것이다. 고문서 대부분은 동래 정씨 집안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다. 이들 고문서는 집안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고문서와 경제 관련 고문서로 분류되어 소개되었다. 활용 방법을 다양화한다면 특정 집안의 구조를 미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회문화사 차원의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동래 지역 엘리뜨와 천주교 수용자들의 고문서는 편저자들이 부산지역에서 직접 조사한 고문서를 집대성한 자료집이다.

수록 내용은 4개 유형이다. 천주교 수용을 주도한 집안의 고문서, 향반 가문과 관련된 고문서, 동래기영회 소장의 고문헌, 이서가문 및 무임가문 관련 고문서가 그것이다. 향반, 이서, 무임은 동래 지역의 토착 지배신분층이었다. 따라서 이들 고문서는 부산지역의 사회문화사를 위한 기본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동래 지역에 천주교 수용을 주도한 집안의 고문서는 천주교 수용의 사회문화사가 복원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석대천씨집안 고문서는 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리 穎陽千氏 집안의 고문서를 정리한 것이다. 모두 255점의 고문서인데 시기적으로 18세기에서 20세기 초기까지 약 180여 년간의 고문서이다. 따라서 특정 문종의 시간적 변화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문화사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들 문서가 모두 석대 천씨 문종의 효행과 관련되었으므로, 다양한 활용 방법을 모색한다면 효에 대한 당시의 사회문화사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자료이다.

범어사의 고문서는 광무 6년(1902) 정부가 범어사에 발급한 절목 문서를 소개한 것이다. 그 내용은 동래부의 이서와 군교, 향청·무청·작청의 삼청이 범어사를 심하게 수탈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9개 항의 금지 조항을 범어사에 적어 주었다는 것이다.

동래 지역 밀양 손씨 향리집안의 고문서는 부산에 거주하던 밀양 손씨 후손이 소장하던 것이다. 이들 고문서가 작성된 시기는 18-19세기이며, 《동래부청선생안》과 비교한 결과 향리 집안의 성격을 드러냈다. 동래의 밀양 손씨 집안은 장관청, 작대청, 수첩청 수임직을 거친 상급 무임 집안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집안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이로

써 동래 지역의 토착 지배층 가운데, 이임과 무임의 연관성이 명료하게 드러났다 하겠다. 이는 차후 부산 지역의 사회문화사 인식을 심화시킬 것이다.

사천면 고문서는 낙동문화원이 ‘沙上戀舊祭壇保存會’와 함안조씨 사상문중에서 소장하던 고문서를 발굴한 것이다. 이들 고문서 가운데 17-18세기의 향약문서와 사상면의 호적 관련 고문서는 조선후기 부산 지역의 사회문화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이미야, 1990, 18세기 조선후기 진경산수-부산지방을 중심으로-,
《연보》 13

손승철, 1993, 《倭人作拏膽錄》을 통하여 본 倭館, 《항도부산》 10

정경주, 1993, 東萊府 東下面 古文書에 대하여, 《항도부산》 10

이훈상 외, 1993, 朝鮮後期 東萊의 支配 엘리프와 이에 관한
古文獻 資料, 《항도부산》 10

민선희, 1993, 조선후기 동래의 향반사회와 무청-조선후기 향
반사회의 지배구조와 사회이동문제에 대한 일시론-,
《역사학보》 139

김승찬, 1993, 17·18世紀 釜山の 文化, 《항도부산》 10

김동철, 1993, 동래부상고안을 통해서 본 19세기 후반의 동래
상인-동래무임선생안과의 비교, 《한일관계사 연구》
창간호

강대민, 1994, 東萊府 南村面 古文書 解題, 《항도부산》 11

정경주 편역, 1994, 해운대의 옛모습이 담긴 동하면고문서 해제,
《해운대의 옛모습이 담긴 동하면 고문서》 해운대구청

정경주, 1995, 덕포동 강선대고문서에 대하여, 《문화전통논집》

3, 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

이훈상 외, 1995, 19세기 동래부 동하면 못골의 동래 정씨와 이들의 고문서, 《항도부산》 12

이훈상 외, 1995, 《조선후기 동래 지역사회의 엘리트와 천주교 수용자들 그리고 이에 관한 고문서》, 부산교회사연구소

손숙경, 1995, 19세기 동래 지역 천주교 수용의 주도자들과 지역사회의 대응, 위의 책

민선희, 이훈상, 1995, 조선후기 동래 지역사회의 엘리트와 이에 관한 고문서 자료: 새로 발굴한 자료에 대한 해설과 논평, 위의 책

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 1995, 《석대천씨5대6효고문서》

이원균, 1996, 東萊府 吏校輩 및 三廳의 梵魚寺에 대한 討索 作弊 禁止節目, 《항도부산》 13

김동철, 1996, 조선후기 동래 지역 밀양 손씨 향리집안의 고문서, 《지역과 역사》 2

낙동문화원, 1999, 《조선시대 동래부 사천면 고문서》

2000년대 들면 활성화된 90년대의 연구 추세가 그대로 이어져서, 각종 사회문화사 고문서 사료의 발굴과 더불어 심화된 사회문화사 연구가 축적되었다. 남원 양씨 집안의 고문서(김동철), 관왕묘 제례(손숙경), 동래부 이족 밀양 박씨 집안 고문서(김동철), 동래 향반(이원균), 임진왜란 전후 부산의 사회변화(김강식) 등이 그것이다.

남원 양씨 집안의 고문서는 부산 지역에 세거해온 남원 양씨 가문에서 소장한 고문서를 발굴해서 정리한 것이다. 조선

후기 사회문화사 측면에서 중요한 고문서는 18-19세기의 준호구이다. 이들 고문서는 족보 등과 상호 연계되고, 각종 무청 선생안과 비교되어서 해당 집안의 가계 복원과 무임직 경력이 정리되었다. 그간의 축적된 무임 집안의 연구 성과와 더불어 동래 토착 지배층의 존재 방식을 한층 구체적으로 드러냈다고 하겠다.

관왕묘 제례 연구는 향반, 무임, 이임, 동래상인 등의 연구와 더불어 부산 지역의 사회문화사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주제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사)동래기영회에 소장된 동래 관왕묘 관련 고문서를 중심 자료로 삼아 분석한 것이다. 19세기 후반 이후 동래에서는 민간에서 행해지던 관왕 제례가 무임(이서) 집단이 주재하는 동래부의 제례로 승격되었다. 이 무렵 동래 향반은 관왕묘 제례를 국가의 공적 의례로 승격시키려 노력하였지만 좌절하였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무임(이서) 집단과 향반 집단이 상호 관왕묘 제례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현상의 표현이라고 보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무임직 수입의 독점권이나 천주교 수용과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찾고 있다. 전체적으로 동래 지역의 관왕 숭배와 관왕묘의 건립, 관왕묘 제례의 주도권을 놓고 향반과 무임(이서)집단이 상호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파악한 것이다. 역사적 상상력이 발휘되는 해석의 타당성은 엄밀한 구조를 바탕으로 할 때 높아진다는 점에서 보면, 동래의 관왕묘 제례에 관한 사회문화사적 연구는 아직 풍부한 해석보다는 엄밀한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조선후기 들어 국가 사전에 속한 관왕묘 제례와 각 지역의 19세기 후반 관왕묘 제례의 연관성, 동래 지역 각 제례의 구조와 관왕묘 제례의 연관성이

구조적으로 명료화될 과제가 남았다. 아울러 향반 집단과 무임(이서) 집단의 상호 관계도 구조적으로 좀더 명료화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동래부 이족 밀양 박씨 집안의 고문서는 조선후기에 동래부에 세거한 이족 밀양 박씨 집안에 소장된 소문서를 발굴해서 해당 집안의 가계와 더불어 혼인 관계, 이임 및 무임직 경력을 복원한 연구이다. 이 집안은 1720-30년대에 동래에 들어와 세거하였는데 준호구 17점만이 남아서 자료가 부족했지만, 해당 집안의 족보와 더불어 그간 축적된 각종 고문서 특히 각종 무칭 선생안 등의 보조를 통해서 가계 복원이 가능하였다. 해당 집안은 이임과 무임을 교차하면서 역임하였다. 이 사례는 동래부의 이임 집단과 무임 집단의 동질성을 잘 보여 주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이임과 무임 집단이 종래 향반이 독점했다고 알려진 중군에 차임된 사례가 드러난 점은 중요하다.

동래 향반은 종래 그 성격이 불명한 채로 사용된 동래 향반의 실체를 밝힌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래의 향안, 향청선생안습유록, 향교경임록, 안락 서원의 역대 임원록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평 문씨, 경주 김씨, 죽산 박씨, 동래 정씨, 여산 송씨 등 5개 씨족이 조선 후기 동래 향반을 대표하는 가문으로 드러났다. 이들 씨족은 향교와 서원의 직임인 儒任과, 향청의 직임인 향임을 독점하면서 향권을 장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기왕의 이임, 무임 등의 연구 성과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5개 씨족 내의 특정 가계를 추적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본관 단위의 씨족으로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전후 부산의 사회변화는 사회사적인 측면에서 임진왜란 전후의 사회변화를 검토한 연구이다. 임진왜란 이후 동래부에서는 남평 문씨, 경주 김씨, 죽산 박씨, 동래 정씨, 여산 송씨 등 향반 5개 가문이 향교의 이전과 중수, 안락서원의 건립, 향회의 구성, 향안의 작성을 통해서 향촌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향반들이 향촌사회를 통제했던 흔적으로서 사하면과 남천면 향약을 들 수 있으며, 동 단위로 시행된 수령향약의 성격을 가졌고, 충효와 상부상조 및 환난상휼을 강조하였다 한다. 임진왜란 이후 무너진 지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성리학적 질서가 강조되었으며, 이런 추세는 동래부에서도 확인되었다 한다. 동래향교의 중건, 안락서원의 건립, 충렬사와 좌수영 25 의용단 건립, 선무단과 만공단 건립, 개인의 충효를 표창하는 정려의 건립 등이 그것이라 하였다. 이 연구 역시 본관 단위의 5개 씨족을 향반으로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각 씨족의 하위 단위로의 추적을 과제로 남겼다.

김동철, 2000, 18~20世紀初 東萊府 巨闕里 南原 梁氏 집안과 그 古文書, 《항도부산》 16

손숙경, 2003, 19세기 후반 관왕 숭배의 확산과 관왕묘 제례의 주도권을 둘러싼 동래 지역사회의 동향, 《고문서연구》 23

김동철, 2003, 조선후기 동래부 이족 밀양 박씨 집안과 그 고문서, 《고문서연구》 22

이원균, 2006, 조선후기 동래 향반에 대하여, 《항도부산》 22

김강식, 2006, 임진왜란 전후 부산의 사회변화 연구, 《항도부산》 22

Ⅲ. 사회문화사를 위한 제언

조선후기 부산지역사 연구 가운데 사회와 문화, 사회사와 문화사 연구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사 연구 동향을 개관하였다. 부산지역의 사회문화사는 본격적인 자료의 발굴과 정리, 접근 방법의 탐색에 힘입어, 초기의 기초연구 단계를 지나서 본격적인 심화연구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는 그간 한국사 연구 방법이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를 거치면서 문화사로 진전되는 추세와도 통한다. 하지만 앞으로의 조선후기 사회문화사 연구에서 좀더 유의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았다. 개관 과정에서 느꼈던 문제를 검토하여 조선후기 사회문화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사료의 발굴과 정리의 중요성이다. 이는 여러 연구자들이 언급하고 실천 중인 문제이지만 여전히 강조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지역사는 지역과 지역인에 밀착된 역사이어서 무엇보다도 1차 사료의 발굴이 중요하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 진전된 조선후기 사회문화사가 새로운 1차 사료의 발굴에 힘입었던 것은 그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발굴 범위와 정리 방법도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발굴 범위에서 새로운 문제는 고문서와 고문헌 발굴을 넘어서 보존과정과 보존에 대한 보존자의 인식을 채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존과정과 보존에 대한 보존자의 인식은 사회문화사 방법이 심화되면 또 하나의 1차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리 방법에서 새롭게 제기될 문제는 1차 사료를 다룰 때 1차 사료성을 명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조선후기 고문서 중에 특정 내

용을 담은 기존 고문서가 낡아서 새로 베껴쓴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밝힌 문건이 있다고 하면, 특정 내용을 담은 고문서는 이미 1차성을 잃었고, 그 사실을 밝힌 해당 문건을 통해서 해당 고문서는 새롭게 1차성을 얻게 된다. 이렇듯 1차 사료 취급에서 내용 파악에 급급한 단계를 벗어나 좀더 정치한 정리 방법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문화사적인 지역사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둘째로 들 것은 임진왜란 관련 연구에서 유교주의 영향을 벗겨낼 필요성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부산지역은 대일방어의 관문이라서 임진왜란의 출발점이자 종결점이었다. 따라서 임진왜란 관련 흔적이 많다. 이러한 흔적은 이미 조선후기에 그 의미가 읽혔으며, 그 때 유교주의가 깊이 스며들었다. 따라서 임진왜란 흔적을 취급할 때 거기에 배인 유교주의를 벗기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동래부순절도를 들 수 있다. 대개 이 순절도가 전하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서 승인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동래부순절도는 단순히 과거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절이라는 유교주의 이미지를 표상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유교주의 이미지가 철저히 비판적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역사교육 과정에서 그대로 학습자에게 수용된다는 점이다. 지역사의 연구와 서술에서 간과된 전근대적 이미지가 왜 문제인가를 보여주었다 하겠다.

셋째로 들 것은 지역사 접근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사회문화사 영역의 부산지역사에 변화의 조짐이 일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연구 대상을 파악하고 사회관계를 구조적으로 조직하는 범주에 머물렀다. 만드

시 거쳐야 할 연구 범주였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것이 지역사 특히 사회문화사에 접근하는 방법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사회와 문화는 상호 긴밀한 관계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적 행위는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며, 문화적 행위는 사회적 의미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종래의 연구가 주로 사회에 주목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사회 속에 내포된 문화적 의미를 포착하여 구성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문화에 주목했을 경우 그 문화 속의 사회사적 의미를 되묻는 것도 필요하다. 예컨대 지역의 과거 흔적 속에 남은 이미지를 해체시켜보는 작업이라든지, 지역에서 탄생하여 전승되는 이미지의 역사화 과정을 해체시키는 작업 등이 그것이다.

넷째로 들 것은 부산지역사가 역사교육 차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종래의 지역사 서술은 지역의 과거 사실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그 목적대로 역사교육 차원에서 수용되었다. 하지만, 21세기형 역사교육은 학습자가 과거 사실의 지식을 학습하는 차원을 넘어서 학습자가 과거 사실을 사고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러한 역사교육의 방향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 서술 방식이 ‘닫힌 텍스트’에서 ‘열린 텍스트’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닫힌 텍스트’는 서술자가 관점이 은폐된 채 객관주의 입장을 취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텍스트는 권위를 가지며, 학습자는 그 권위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도록 강요받는다. 반면, ‘열린 텍스트’는 서술자의 관점을 노출하여 서술의 주관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학습자가 서술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사고하도록 유도한 서술을 가리킨다. 바꾸어 말하면, 학습자가

독자인 동시에 역사 서술자가 되도록 돕는 서술 방식이다. 이 경우 지역사 서술에서 중요한 점은 학습자가 사고할 수 있는 방식과 요소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IV. 맺음말

1960년대부터 연구되기 시작한 부산지역사는 80-90년대를 거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조선후기 사회문화사도 심화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후기 부산지역사는 제도사적인 연구로부터 점차 사회사 차원으로 이동하였고 이어서 문화사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린 셈이었다.

사회문화사란 사회와 문화, 사회사와 문화사 두 영역을 합성한 용어이다. 전자는 주로 연구 대상 영역, 후자는 접근하는 방법론 차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회사는 주로 향촌사회의 구조와 운동에 주목하였고, 문화사는 2개 단계의 의미를 뜻하였다. 1단계의 문화사는 초기의 의미로서 생활양식, 정신 활동을 나타내었지만, 2단계 문화사는 구조 속에서 행해지는 인간 행위와 행위 산물의 의미를 읽는 방식을 나타내었다. 2000년대 들어서 사용된 문화사는 2단계를 의미하였다. 문화사와 사회사는 상호 연관되며 전체적으로는 사회사를 토대로 하여 문화사가 확장되며 현재는 문화사가 수용되는 초기 단계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문화사는 사회사와 문화사를 아우른 용어였다.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었지만 사회문화사 차원에서 중요한 소재는 임진왜란, 왜관, 토착 지배층(향반, 이임, 무임), 동래

상인, 관왕묘 제례 등이었다. 토착 지배층과 관왕묘 제례 등을 통하여 동래 지역의 토착 지배층과 지배 구조의 실체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었다. 임진왜란과 왜관 연구는 기왕의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사회문화사적인 차원으로 심화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관왕묘 제례 연구는 부산지역의 사회문화사에서 문화사적인 접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사회문화사 연구 동향을 개관하면서 파악된 점을 바탕으로 네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사료의 발굴과 정리 방법을 좀더 엄밀하게 하자는 것, 임진왜란 관련 사실에 덧입혀진 유교주의를 해체시키자는 것, 기왕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당시의 인간 행위와 행위의 산물에 내재한 의미 읽기가 필요하다는 것, 21세기 역사교육 방향에 적절한 ‘열린 텍스트’ 방식의 지역사 서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다.